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명제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111호제작소와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지혜와 열정을 다바

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과학지구에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성시를 수도 평양의 위성시라고 하시였는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도 담아 새로 일떠세우는 과학자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설명절이 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높은 이상과 꿈을 안고 보다 큰 과학기술성공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친길로 과학자휴양소가 일떠서게 될 연풍호

를 찾으시였다.

지난해 몸소 배를 타고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신데 이어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현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수록 경치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풍호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이곳에 세상에 다시 없는 과학자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면서 실개와 자재보장, 건설력향진성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고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부대장병들은 새해 정초부터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들을 거둬 찾아주시며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끼없이 바쳐가고있는 군부대장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생활을 향

상시키는것이 올해 인민군대군사사업의 중심고리라고 하시면서 2014년을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패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올해에 콩농사, 수산, 축산의 3대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생활개선에서 이곳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군부대가 군인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올해말에 조선인민군 후방일군대회를 조직하자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은 군인생활개선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안고 대회장에 땀땀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

대 전자도서관, 도서실을 돌아보시고 과학기술성과자료들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군인관에서 군부대에출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에출신전대원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연주회에서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선인민군가》, 《조국보위의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7.27행진곡》,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조국찬가》, 《승리의 열병식》,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금관을 위한 취주악 《승리자들》, 클라리네

트4중주 《보람찬 병사시절》, 외국곡들인 《아무르강의 물결》, 《울란》 행진곡 등이 연주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번 연주회가 새해에 들어와 자신께 큰 힘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들과 연주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주회의 곡목선정과 편곡을 아주 잘했다고 하시면서 특히 섬세한 예술적형상과 풍부한 울림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구가한 취주악 《조국찬가》를 잘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상예술성이 완벽하고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공연을 진행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군악단의 예술

창조와 연주활동에 필요한 악기들과 문건기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군악을 더 높이 올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투지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군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 창작가, 연주자들이 앞으로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조, 연주활동을 보다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인민군군악단을 세계적인 군악단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향한 보람찬 총진군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 선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

쓰라린 비극의 민족분열사에 21세기 14번째의 년분이 새겨지고있다. 해와 달이 바뀔수록 깊어만지는 겨레의 가장 큰 아픔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쿠도량단과 민족분열의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품고서 올해의 첫 려병이 떠오르는 뜻깊은 시각 내외에 천명하신 절세의 애국자의 애국, 애민의 뜨거운 호소와 조국통일과 평화변명을 앞당겨 안아오시려는 철의 의지는 삼천리강토와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마음들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만이 유전으로 체결화된 대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새해부터 상서롭지 못하게 높아대고있다. 마치 엄중하게 번져지고있는 북남관계의 현 대결국면이 우리대문인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안일을 놓고 함부로 꺼들며 그 무슨 《금변사태》의 허황한 꿈을 꾸다 못해 잊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꾸며대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다. 지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신물이 나게 써온 상투적인 수법 그대로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구실일

에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까지 기간을 앞당겨 2월말부터 강행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 전쟁연습계획안에서 계획되어있는 《쌍룡》 상륙작전연습만 하여도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여지게 된다고 한다. 문제의 위험성은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이 미제침략군의 술한 땅크, 장갑차집단과 비행대편대를 비롯한 새로운 해, 공군력량이 남조선과 그 주변 현지에 은밀히 전개되고있는 상태에 벌어지고있다는데 있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안한다. 1.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뜨거운 호소에 화답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것을 제안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사이에 호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6.4합의》를 이룩한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민족앞에 서약한 이 합의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다.

진정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당국자들자신부터 입건사를 잘하고 언론매체들을 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으로 이끌어 조선반도전역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이제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반목질시의 악순환에 중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겨레의 목소리에 더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될것이다. 2.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제안한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그 즉시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것이 오늘 조선반도현실이다. 이제 이 땅에서 터지는 전쟁은 대국

들에게는 어부지리를 주게 되고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주는 상상밖의 재난으로 될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누고 벌리는 모든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무조건 즉시 중지할것을 다시금 제의한다.

당면하여 남조선당국은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말부터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그처럼 버릴수 없는 소중한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의 령도와 명해, 령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려놓으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지어가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을것이다.

우리는 특히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포함하여 지

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것이다.

3. 이 땅에 조래할 핵재산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로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우리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격하고 해지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협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

동족을 해치는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온 겨레를 지키는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행태와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중대제안에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앞당겨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원칙적인 중대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한겨울의 추위도 녹이는 체육열기

공화국에서 매월 두번째 일요일은 체육의 날이다. 어느날도 그러하지만 이날이면 온 나라 각지에서 대중체육열기로 들끓는다.

지난 1월 12일, 새해에 들어와 첫 체육의 날인 이날 평양의 김일성광장은 이른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고 올해에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갈 열의를 안고 모여온 내각의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었다.

운동복을 가뿐히 차려입고 자기 단위의 간판을 앞세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업성, 건설경제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출발구령이 내리자 두개 조로 나뉘어 여러 방향으로 집단달리기를 시작하였다. 참가자들의 열광마타에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튼튼한 몸으로 올해의 사업에서 성과

를 이룩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와 열정이 차 넘쳤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리는 선동과 노래소리에 고무되어 웨치는 힘찬 구호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도 순간에 가셔 버리는듯 했다. -10℃를 오르내리는 1월의 땀만 날씨건 줄을 맞추어 집단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평양의 겨울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집단달리기가 끝난 다음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대중물동체조와 건강레전도 모범출연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평양체육관 광장에서는 5000여명에 달하는 시안의 대학생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모여 집단달리기와 건강레전도, 대중물동체조 등으로 청춘의 기백을 한껏 시위하였다. 그옆에 위치한 로라스케트장에서는 로라스케트를 타는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펼쳐

졌고 빙상장에서는 학생들의 썰매타기, 스케트타기와 함께 흥겨운 기마전들이가 승부를 다투며 진행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밀가루공공장, 평양맥주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에서도 배구, 탁구 등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를 벌이며 체육의 날을 유쾌하게 보내었다.

시안의 각 구역에서도 첫 체육의 날 선포모임을 가지고 집단달리기와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체육운동과 경기를 벌였으며 구역안의 각종 운동회는 인민반별로 유희이와 장기를 비롯한 재미있는 민속오락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공화국의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체육경기와 민속놀이들도 첫 체육의 날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상기된 얼굴들에 웃음을 담고 달리기와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건강한 체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해갈 애국의 열의와 함께 신심과 락관이 어려있었다.

약동하는 기백과 랑만에 넘쳐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황해남도 해주시의 근로자들도 첫 체육의 날을 계기로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대중체육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소년들이 여러가지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온 시가 체육열기로 끓어번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앞장에서 선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집단달리기와 여러가지 구기종목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도승배투기 등 시사회양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집단달리기에 이어 여러가지 체육경

기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체육의 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날 해주시의 경기장, 체육관에서도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 기업소들사이의 축구와 배구를 비롯한 종목별 대항경기가, 시안의 협동농장과 학교들에서도 대중체육활동과 체육소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체육의 대중화,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데서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올해 첫 체육의 날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올해 첫 체육의 날에도 비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신나는 탁구경기

바다물이 짙아 알자면 한방울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룡해운성에서 일어난지는 탁구열풍을 느끼고서도 우리는 온 나라에 일어난지는 체육열풍을 느끼고 있다.

지난 일요일 룡해운성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탁구경기장들이 펼쳐졌다. 탁구장에서 만난 한 일군은 지금 단위별 탁구경기가 한창이라고 말해주었다. 며칠 전부터 진행된 온 단위별 예선경기에서 이기고 올라오는 선수들이 룡해운성에서 결승경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두 팀간에 단식경기가 끝나고 방금 혼성복식경기가 시작되고있었다. 지난 시 탁구경기에서 늘 알자리를 차지해왔다는 룡해운성 선수들의 얼굴에는 오늘의 승리의 자기의것이라는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함판관리국 선수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지금껏 부러 마 해운 탁구기술이 이제 상수준으로 뛰어오른

이들의 얼굴에도 어디 한번 붙여보자는 배심이 감돌고있었다.

《오늘은 우리를 이길수 있겠나?》

나이지숙한 룡해운관리국 선수가 넋지시 건네자 《경기야 이기려고 하는거지, 어디 한번 붙어보세.》하고 여유있게 되받아넘기는 함판관리국 선수. 그 말에 두 팀 선수들의 승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긴장하여 경기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 한점한점 점수가 오를 때마다 웅원석에서 터져나오는 환성과 아쉬움의 목소리들로 하여 탁구장은 떠들썩하였다.

기관안의 탁구열기가 보통 아니라는 우리의 말에 한 일군은 남자들이 룡해운성정무원들속에서 탁구열의가 이만저만 아니라며 탁구칠줄을 모르던 녀성동무들의 수준이 이제는 전문선수 못지 않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다.

룡해운성에서는 주별, 월별로 세워진 탁구경기일정에 따라 일군들부터 앞장서 탁구를 치고있다. 그러니 기관안에 자연히 탁구에 대한 대

본사기자 고영숙



미림시구에 승마바람이 분다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 미림승마구락부란 말이 친근하게 자리잡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나날이 흘렀다. 이 나날 사회주의생활의 웃음꽃을 더해주는 새로운 바람이 일 어번졌다.

승마바람이다. 추운 겨울철인 요즘에도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갈하게 꾸러진 토사주로며 잔디주로, 불수록 유행하게 안겨오는 정각이며 특색있는 천막휴식장, 훌륭한 형상된 명산의 기암괴석... 미림승마구락부의 야외풍경은 이채롭게 안겨온다.

주로를 따라 말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마수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경쾌한 것인가. 모든것을 일구어놓을 듯 모질게 불어치는 찬바람을 맞받아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함께 말을 타고 광야를 내달리듯 한 심

경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가하면 지붕으로 파스한 햇빛이 흘러들고 실내온도도 알맞게 보강되고있어 겨울철의 추위를 전혀 느낄수 없는 실내승마훈련장은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이 속편을 하느라 흥성인다. 편리하게 꾸러진 훈련장의 내면이 거울까지 설치되어있어 누구나 마음껏 말타기를 배우며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기도 한다.

훈련장이 좀더하게 손님들을 태우고 경쾌하게 달리는 말들의 애칭 또한 각각이다. 류경, 은방울, 목란, 화성, 등대, 이갈...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으로 불리우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사는 리일령은 승마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을 타고 주로를 달리고나면 쌓였던 피로가 씻은듯이 사라지고 담이 커질뿐 아니라 생활에 대한 회렐과 랑만에 넘쳐 일어서 더욱 성수가 난다고 기

뵈에 넘쳐 말하였다.

한영심봉사원은 말을 어렵적부터 타면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고 지휘능력도 키울수 있다. 대답성과 용감성을 자라낼수 있을뿐 아니라 말타기를 통하여 온몸운동을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허리근육이 발달되는것으로 하여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한 병을 예방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림승마구락부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두번째엔 계속 온다고, 지금까지 승마봉사를 받은 손님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들중에는 청년대학생들도 있고 평양경찰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며 가정부인들, 나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지만 봉사원들의 방조속에 누구나 말타는 요령을 인차 터득한다는 것이다.

봉사원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새기며 말타기를 꾸준히 하면 청년들인 경우에는 한주일이면 어지간히 말을 자유롭게 다룰수 있나니 열기왕성한 시절에 누구든 승마의 세계에 뛰어들고싶지 않나.

그래서인지 추운 겨울철에도 미림시구에 일어난지는 승마바람은 잦아들줄 모른다.

본사기자 홍범식

한해치고 제일 추운 1월이지만 대중강반에 위치한 문수물놀이장은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런일 흥성이고있다.

뺨팍 눈바람이 불어치는 바깥과는 달리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여기 실내물놀이장은 완연한 여름철이다.

실내온도가 25~27℃, 수조안의 물온도가 30℃인 실내물놀이장은 맑은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엔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흥성인다.

이곳 물놀이장의 리영심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추운 겨울임에도 물놀이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요즘은 방학이어서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고 말하였다.

볼트라스형식으로 특색있게 지붕을 처리하여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친듯 한 실내물놀이장은 말 그대로 웃음의 바다, 행복의 바다이다.

높이가 근 20m인 물미끄럼대의 정점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청년들, 한번 타보고는 성차지 않는지 또 타겠다고 달려가는 장난꾸러기들, 그런가하면 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다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곤두박질하여 웃음판을 펼쳐놓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물속에서 초음

1월의 물놀이 풍경

파치로를 하는가 하면 수영경기를 하는 자기편 선수들을 응원하느라 여념이 없는 청년들도 있다.

동화그림에서 나오는 커다란 《개구리》입에서부터 좋아라 물속으로 미끄러져내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좋지만 폭포마냥 떨어져내리는 덕수를 맞으며 끝없이 웃음발을 터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흥그러움을 자아낸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물놀이장에는 파도수조도 설치되어있어 해수욕경도 볼수 있다.

썩- 처질씩... 침없이 물갈기를 날리는 파도물속에

를 맞으며 끝없이 웃음발을 터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흥그러움을 자아낸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물놀이장에는 파도수조도 설치되어있어 해수욕경도 볼수 있다.

썩- 처질씩... 침없이 물갈기를 날리는 파도물속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흥그러움을 자아낸다.

이곳 물놀이장은 말 그대로 웃음의 바다, 행복의 바다이다.

높이가 근 20m인 물미끄럼대의 정점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리는 청년들, 한번 타보고는 성차지 않는지 또 타겠다고 달려가는 장난꾸러기들, 그런가하면 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다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곤두박질하여 웃음판을 펼쳐놓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물속에서 초음

본사기자 최대성



중국신문 우리 나라 영화 《꽃파는 처녀》를 소개

중국의 《홍콩강신문》 9일 부가 우리 나라 영화 《꽃파는 처녀》를 소개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작품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이 작품을 1970년대에 영화로 각색하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영화 《꽃파는 처녀》는 중국에서 상영되어 대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는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

달을 받았다.

신문은 중국의 한 주민은 소학교시절에 본 영화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10리길을 걸어가 로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았다. 모든 관객이 함께 울었다고 말하였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나이제리아주제 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들을 올렸다.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특유한 현상들이 있다.

사람들이 집값을 모른다. 평양에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집주인들인데도 그들이 집값을 전혀 모르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집값을 물론 한다.

서방에서 근로자들이 조선

따사로운 인민적시책이 차넘치는 조선

사람들이 살고있는것과 같은 훌륭한 집을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집이 없어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수다한 서방에 비해볼 때 조선의 현실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는것이다.

또 하나의 특유한 현상은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담당의사를 두고있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에게는 돈많은자들이나 돌수 있는 담당의사를 평민들이 무료로 두고있다는 사실이 도

무지 리해되지 않을것이다.

조선에서는 또한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나라에 맡기고 있다.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그것이 무로라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뿐 아니라 대학, 박사원에 이르기까지의 고등교육도 역시 무로이다.

조선인민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주신 수령들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는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같은 사람들이 실업을 모으며 여성들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조선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근로대중이 주인이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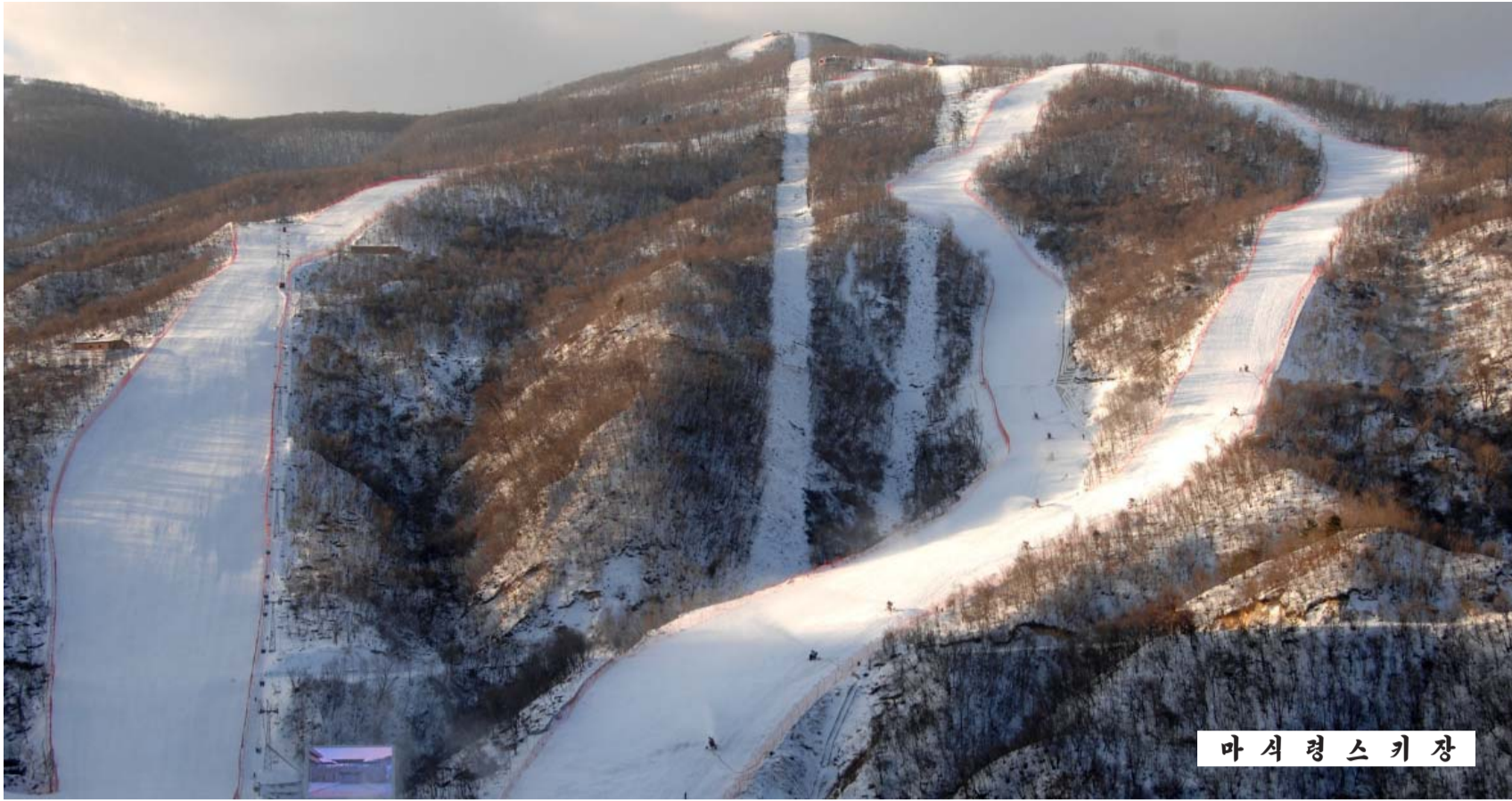
는것이 조선인민의 정신적 특질이다.

치료비, 집값, 세금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등적으로 존재하는 어두운 그들이 조선에는 없고 따사로운 햇빛과 같은 인민적시책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세계의 관심:조선관람》이라는 제목의 글은 우리 나라에서 관광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마세콩스키장

스키경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 살던 고대인들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눈 위에서 걷기 편리한 설리같은것을 리용하였으며 그것을 사냥과 지어 군사활동에도 리용하였다.

스키타기는 수천년전부터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나 그것이 경기형식으로 되기 시작된것은 1850년경부터이다.

1866년 노르웨이에서 스키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877년에는 세계최초의 스키구락부가 무어졌다. 1879년 오슬로 교외에서 스키조약경기가 진행되던 이어 1892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세계최초의 국제스키대회가 열리었다.

스키운동은 알프스산맥을 낀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나라들에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알프스산맥을 낀 나라들에서는 그 지형학적특성에 맞는 내려치

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를 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알프스스키(고산스키)로 체계화되고 더욱 다양화되었다. 그리하여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노르디크스키(노르웨이북방이라는 뜻)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알프스스키가 대립되게 되었다.

여기로부터 스키종목이 알프스경기종목과 노르디크경기종목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스키는 1924년 제1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 정식 올림픽종목으로 되었다. 1924년에 국제스키연맹이 조직되었으며 1925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를 진행하고있다.

스키경기에는 스키저리경기(노르디크 혹은 북방형스키경기)와 스키고산경기(알프스경기), 스키조약경기, 겨울철현대 4, 5종경기 등 여러가지가 있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고려주사약생산의 공업화 실현

만년제약공장에서 암에 대한 예방치료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비타민B17을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는 암이 없는 나라로 불리우는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 의학자들은 이 나라들에 암환자들이 없는것은 이곳 사람들이 살기 서로 만든 약을 쓰고 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관련되어있다는것을 밝혀냈다.

살기씨에는 강한 항암작용을 하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에 깊은 주박을 돌린 공장 기술자들은 여러해동안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첨단약품으로 인정받은 비타민B17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 우리 식의 독특한 유기용매법으로 살기씨에서 기름을 짜고 나오는 박

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성분을 추출, 분리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주사약을 공업적방법으로 다량생산할수 있는 공정도 그쁘히 꾸려놓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암의 예방과 치료에 비타민B17이 광범위 리용되고있는데 이 약품은 현재 몇개 나라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독점물품이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공장의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민족적자존심과 야심만만한 투지를 지니고 두뇌전을 힘있게 벌려 살기씨에서 아미그달린성분을 추출, 분리하는 수를 줄여 내지 못하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정맥주사용비타민B17은 고지혈증과 암의 치료와 예방에 쓰

인다.

암환자인 경우 암성동통이 없어지고 종물이 작아지면서 치료되었다고 한다. 치료뿐만아니라 예방에 특효가 있다.

이 주사약은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타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높아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을 정상수치로 되게 하고 순환기질병과 고혈압병치료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알레르기성질병치료에도 좋은 이 주사약을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등과 함께 쓰면 보다 큰 로화방지작용도 한다고 한다.

비타민B17의 공업적생산은 나라의 제약공업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의 귀중한 고전유산 《백두산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겨레의 귀중한 민족고전유산들중에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처음으로 상세히 소개하고있는 《백두산고》의 속편 《백두산고》도 있다.

《백두산고》는 18세기에 활동한 유학자인 홍량호(1724-1802)가 백두산의 자연, 지리, 동식물, 지명, 강하천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문헌으로서 사료적가치가 크다.

《백두산고》에서는 우리 겨레와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 각기 다른 역사적지기에 여러가지로 불리우던 백두산과 관련한 명칭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있다.

또한 백두산일대의 자연리과 동식물관계자료들도 상세히 소개하고있다.

《백두산고》는 백두산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고있는 유일한 고전문헌으로서 백두산의 자연과 역사자료들을 풍부히 하고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귀중한 사료로 된다.

《백두산고》는 예로부터 백두산은 조선의 성산으로서 우리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의 상징으로 숭상해왔다는 생동한 자료를 제공해주고있다.

《백두산고》에 소개된 백두산일대의 자연과 지리에

건강에 유의한 낱알순위

건강에 유의한 낱알순위에서 메밀쌀이 1위를 차지하였다. 메밀쌀은 유기체의 로페물과 독소제거에서 도움을 주는 섬유소를 함유하고있다.

2위는 현쌀, 3위는 귀밀쌀이 차지하였다. 귀밀쌀에는 알레르기아를 일으킬수 있는 글루텐이 들어있지만 의사들은 소화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죽을

권고하곤 한다.

4위에 오른 기장쌀은 탄수화물이 풍부하지만 유유나 남새와 함께 먹지 않으면 체내에 흡수되기 힘들다. 호박을 섞어 기장쌀죽을 만들어 먹는것이 가장 좋다. 이 죽은 알레르기아환자들에게 유익한 식품이다.

5위는 밀쌀이 차지하였다.

본사기자

식당에서 유모아... 한게 고기만두를 먹던 손님 이 접대원 《어떻게 된거요? 이 만두속에 왜 돼지고기가 없소?》 《그렇습니다. 돼지고기가 없나?》 《그럼 한입에 한개씩 먹으니 고기 있는데를 지나친 모 양이군요.》

《돼지고기가 없나?》 《그럼 한입에 한개씩 먹으니 고기 있는데를 지나친 모양이군요.》

대한 자료는 오늘날에 와서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순결한 마음 (8)

글 주광혁, 그림 김윤일

3

작은 간격으로 수축이 시작됐다.

물주머니가 해산길로 압축되어 리지면서 액체가 흘러나오고 주기성이 뚜렷해지기도 2시간이 넘었다.

상상적으로도 첫 새끼가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데... 《(평화)야, 힘을 내. 힘을 내라는데.》 모로 누운 《평화》가 힘들게 머리를 들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나를 찾는 눈빛이었다. 끝없는 고통과 호소, 갈망과 애원의 눈빛앞에 나는 죄지는 사람의 심정으로 바제었다.

과들과들 떨어진 《평화》의 배가죽이 한껏 부풀더니 풀무에서 뿜어나오는 소리같은 고통의 하소가 나의 고막을 짝 메운다.

《평화》야, 맥을 놓지마. 응, 그리고 제발 긴장을 풀어주렴.

나는 지그시 입을 열어 말했다.

《명옥동무, 손을 빼요. 명옥이, 손을!》 《가만있어요!》 내 몸의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나갔는지 반장만이 아니라 순애의 숨소리마저 즐지에 멎어버렸다.

신음소리가 쟁가보아 나는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고동치고 일어난 가랑이가 불라듯 타들어 갔다.

후두운 감이 잔등으로부터 느껴지더니 잔등에 달린 불길처럼 목을 타고 올라가 이마에 진한 땀줄기를 이루었다.

순애가 부지런히 닦아주었으나 내얼굴이며 목에서 는 시루에서 떨어지는 물

새로 발굴된 신석기시대 무덤유적

최근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의 연구집단이 강동군 란산리에 있는 주현동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수많은 유물들을 새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강동군 란산리에 있는 주현마을 주변산의 자연동굴 퇴적층에서 나온것이다. 이 동굴의 길이는 18m, 너비는 4m, 높이는 7.3m이며 퇴적층의 두께는 5.8m이다.

퇴적층은 퇴적물의 조성상 특징에 의하여 서로 다른 5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유물은 제3층에서만 발굴되었다. 유물들은 사람뼈 9개체분에 260점, 질그릇조각 7개체분에 22점이며 기타 유물들로서는 달아매는 치레거리 1점, 조개칼 2점, 불에 탄 뼈 4점, 짐승뼈 5종에 81점이다.

발굴된 사람뼈들은 신석기시대의 조선포유형사람의 뼈이다. 지금까지 대동강유역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와 중기, 후기의 인류화석 등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조선포유형사람뼈들이 발굴고증된것

이 적지 않지만 주현동유적에서와 같이 한창소에서 많은 개체의 사람뼈들이 발견된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유적에서 나온 질그릇의 무늬새김수법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새김수법과 같은것으로서 주현동유적의 년대가 신석기시대 중기말에 해당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현동유적은 우리 나라 대동강유역에서 나온 신석기시대의 첫 무덤유적이다. 새로 발굴된 주현동유적을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보는가 아니면 무덤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이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동굴유적들에서 사람뼈들이 알려졌지만 이 유적에서와 같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나온것은 없다고 한다. 이것은 여기에 사람뼈들이 우연적으로 묻힌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정히 매장한 무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질그릇을 비롯한 유물들이 사람뼈가 나온 구역에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

본사기자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땀만 흘려가며 추운 겨울날을 넘기던 산으로 내달리며 날짐승, 산짐승, 들짐승을 잡는 사냥을 즐겨하였다.

사냥에서 널리 쓴 방법들은 구멍이를 파고 그안에 강베어나 조이삭, 갑자알, 콩각지 등을 넣은 다음 그우에는 약한 너스레를 치고 흙을 얹게 덮거나 나무잎을 깔아두었다가 짐승이 빠지게 하는것이였다. 이런 함정으로는 주로 메돼지나 범, 곰, 노루 등을 잡았다. 함정, 끈의 중간에 스톨을 쳐두면 짐승을 그대로 잡을 수도 있었다.

짐승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로 끈 그물을 쳐놓고 토끼나 여우, 노루 등을 몰아서 산채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 쇠줄이나 삼노끈, 명주실 끈질을 고를 내어 훑쳐서 만든 응노(올가미)를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고 토끼,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의 목이나 발목을 걸어 잡기도 하였다.

사냥방법들 가운데서 아무 때 아무데서나 할수 있으며 또 튼튼한 체력과 역센 담력이 안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창으로 썰러잡는것이였다. 젊은이 3~4명이 함께 잡자는 품을 깨우거나 혹은 품, 메돼지와 맞대들었을 때 일시에 힘을 합쳐 창질을

로 모든 사냥군들이 긴장하고 응명해야 하며 사냥군들 사이에는 의리가 깊어야 하였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멧리하고 날랜 풍산개와 진도개, 제주도에서 나는 토종개들을 리용하여 사냥을 많이 하였으며 매를 길러서 사냥에 리용하기도 하였다.

사냥은 칼바람을 맞받아 눈덮인 들과 산만을 쉬임없이 내달려야 하며 때로는 위험도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해의 농사일과정에 역센 체력과 슬기와 담력을 키운 청장년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사냥터를 종횡무진하며 많은 짐승을 잡았으며 몸과 마음을 더욱 단련하였다.

참으로 사냥은 사람들에게 맞은 고기와 좋은 털가죽을 쫓아내거나 힘과 용맹을 키워주고 의리를 깊게 하여 주는 매우 유익한 겨울철로 동생활용품이였다.

본사기자

처럼 땀줄기가 끊길줄 몰랐다.

그렇게 호른 땀이 속옷을 적시며 두어개와 앞가슴에 내배었고 그렇게 호른 땀이 《평화》의 몸통에도 떨어졌다.

《평화》야, 너무 걱정말아. 그리고 그런 눈빛으로 내를 보지마.

너도 보고있지? 너희들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림이 잔뜩 주름살지운 웃입술아래 송곳이와 빨간 혀를 약간 내밀고 가래뿜는 소리를 내면서 《평화》를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

《통일》야, 너무 걱정말아. 그리고 그런 눈빛으로 내를 보지마.

너도 보고있지? 너희들을 위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한 눈빛을 번쩍이며 응크리고있는 《통일》이 안겨 랑쪽귀를 불안스레 움직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꼭 잘 될거야. 아들이 점점 무뎠어졌다. 손은 감각을 잃은듯 했고